

대전빵차 더 맛있게 달린다

먹거리 콘텐츠 업그레이드 ... 인기빵빵 꿈돌이라면도 출동



2025 대전 0시 축제 전국 홍보 투어에 나선 대전빵차가 엑스포과학공원 한빛탑을 주변을 달리고 있다. 랩핑된 버스는 꿈씨 패밀리 캐릭터와 빵, 기차 이미지 등이 그려져 있어 대전의 정체성을 상징한다. 대전시 제공

지난해 전국적인 인기를 끌었던 대전빵차가 업그레이드된 시즌2로 돌아왔다. 대전시는 대전관광공사와 함께 오는 8월 열리는 0시축제의 붐업을 위해 전국 주요 도시를 순회하는 대전빵차 전국투어를 본격 추진한다. 투어는 29일부터 30일 부산대학교 축제를 시작으로 7월 말까지 충주 다이브 페스티벌, 세종 정부청사 홍보 행사, 보령 머드축제 등 전국 행사와 연계해 운영된다. 특히 7월 12일에는 대전한화생

명이글스파크에서 열리는 KBO 올스타전에서도 전국 야구팬들과 만난다. 시즌2에는 성심당을 비롯한 지역 대표 베이커리들이 참여해 대전 빵의 정통성과 매력을 전한다. 여기에 시가 자체 개발한 꿈돌이라면도 추가돼 먹거리 콘텐츠를 다변화했다. 빵과 라면 증정, 룰렛·OX퀴즈·추억의 뽑기 게임, 꿈씨 굿즈 이벤트, EDM 파티, 꿈돌이 탈인형 퍼포먼스 등이 펼쳐진다.

이준섭 기자 ljs@ggilbo.com

‘보물’ 찾는 대전 원도심 탐험대

대전사회혁신센터 내달 13일까지 ‘디딤이’ 모집

대전사회혁신센터가 ‘대전 원도심 탐험대’의 탐험대원인 ‘디딤이’를 내달 13일 오후 6시까지 모집한다.

탐험대는 대전시민 참여를 통해 센터 사업의 방향성과 질을 도모하는 역할로 디딤이는 혁신센터가 주관하는 주요 사업을 직접 체험한 뒤 개선 사항 등을 제안한다. 디딤이는 오는 10월까

지 활동하며 혁신센터의 여러 사업 현장을 경험하고 개선을 위한 아이디어를 제시하면 된다. 대전시민이면 누구나 디딤이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소정의 활동비가 지급된다. 신청은 혁신센터 홈페이지(commonz042.kr)에서 하면 되고 결과는 내달 18일 홈페이지에서 발표된다.

김현호 기자

대전교통공사, 철도안전관리 평가 최우수등급

대전교통공사가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의 2024년도 철도 안전관리 수준 평가에서 ‘최우수 등급’ 윤영기관으로 선정됐다.

27일 교통공사에 따르면 평가는 전국 철도운영과 시설관리기관 등 24곳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국토부 등은 각 기관의 철도안전체계 이행 실태, 사고지표, 안전성숙도, 개선 노력 등을 살폈다. 교통공사는 지난해 동안 철도 안전사고 무사고를 달성하며 조직 전반의 안전문화 내재화와 지속적인 교

육훈련 강화를 통해 안전성숙도 지표가 전년 대비 크게 상승하고 사고지표 부문에서 만점을 획득하는 등 안전 전방에서 우수한 성과를 인정받아 최우수 등급 철도안전관리기관에 이름을 올렸다.

또 철도 안전관리 평가에서 5년 연속 우수등급 달성에 이어 올해 처음으로 최우수 등급을 획득하며 명실상부한 전국 최고 안전 수준의 철도운영기관이란 점을 입증했다.

김현호 기자 khn0303@ggilbo.com

한밭도서관 영유아 북스타트 운영

한밭도서관은 내달 14일부터 지역 영·유아를 위한 독서 지원 프로그램 북스타트를 운영한다. 대상은 관내 3세부터 7세 영·유아로 도서관에선 그림책을 중심으로 한 책놀이와 부모 교육을 병행해 제공할 계획이다. 참여를 원하는 가정은 29일부터 도서관 홈페이지를 통해 선착순 신청하면 된다.

김혜정 관장은 “책을 통해 부모와 아이가 함께 소중한 추억을 쌓고 평생 독서의 기초를 다질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북스타트는 ‘책과 함께 인생을 시작하자’는 취지의 지역사회 기반 독서 프로그램으로 영·유아기부터 책과의 긍정적인 관계를 형성하고 보호자와의 애착을 강화하는데 초점을 뒀다.

이준섭 기자

유현준 건축가 동구청서 특강

유현준 건축가가 내달 10일 동구청을 찾아 공간의 중요성을 설명한다. 대전 동구는 대강당에서 2025년 평생학술큐 명사 특강 ‘유현준의 공간 인간’을 개최한다고 27일 밝혔다. 유 건축가는 홍익대학교 교수이자 건축가로 ‘도시는 무엇으로 사는가’, ‘공간이 만든 공간’ 등 다수의 저서를 통해 공간과 사회의 관계를 쉽고 흥미롭게 풀어낸다. 강연에서 시대별 대표 건축물을 통해 건축 양식의 변천사를 살펴보고 공간의 변화가 인간 사회에 미친 영향에 대해 깊이있는 이야기를 전할 예정이다. 특강은 ‘머물고 싶은 도시, 동구를 위한 공간 인간’을 주제로 진행되며 사전 신청 없이 당일 오후 1시 30분부터 선착순으로 입장할 수 있다. 김현호 기자

‘구해줘요 충남씨(sea)’ 프로젝트 닷 올렸다

범도민 연안정화 활동 시작 민·관 등 지역공동체 합심

충남도는 27일 서천군 유부도에서도 공무원, 바다환경지킴이, 서천군 주민 등이 참여한 가운데 해양쓰레기 수거 활동을 갖고 범도민 연안정화 활동인 ‘구해줘요 충남씨(sea)’ 프로젝트의 본격적인 시작을 알렸다. 이 프로젝트는 해양쓰레기로 몸살을 앓고 있는 보령, 아산, 서산, 당진, 서천, 홍성, 태안 등 도내 연안 7

개 시군의 환경오염 문제 해결을 위해 지역주민, 기관단체, 자원봉사자 등 지역 공동체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마련했다.

해양환경교육 및 생태탐방, 플로깅 등과 연계한 도민참여형 정화활동, 해양레저동호회와 함께하는 레저형 정화활동, 기업·단체가 특정해변을 입양해 반려동물처럼 돌보고 관리하는 반려해변형 연안정화활동 등을 추진한다.

해양쓰레기 상시 관리를 위해 매

월 셋째주를 ‘연안정화 주간’으로 정하고 각 시군별 연안정화활동 등 캠페인을 추진하며 관광객이 증가하는 5-9월에는 대규모 연안정화활동도 추진할 계획이다.

조진배 도 해양정책과장은 “지속 가능한 바다를 위해서는 해양 생태계에 심각한 위협을 주는 해양쓰레기 체계적인 관리가 필수”라며 정기적인 정화 활동과 정책적 지원을 이어갈 계획임을 밝혔다.

내포=이석호 기자



27일 산동성 지난시에서 개최된 국제 우호도시 협력 콘퍼런스에서 전형식 충남도 정무부지사가 산동성과의 새로운 미래 협력 관계를 위한 양기관 간 친환경 에너지 분야 메가 협력 프로젝트를 제안했다. 충남도 제공

충남도, 중국 헤이룽장성·산동성과 미래 협력 모색

방중 전형식 정무부지사, 지방정부 관계자와 교류 확대 등 논의

중국을 방문 중인 전형식 충남도 정무부지사는 27일 산동성 지난시에서 개최된 국제 우호도시 협력 콘퍼런스 개막식에 참가해 충남의 산업 여건과 잠재력에 대해 발표했다.

전 부지사는 이 자리에서 산동성과의 새로운 미래 협력 관계를 위한 양기관 간 친환경 에너지 분야 메가 협력

프로젝트를 제안했다.

전 부지사는 앞서 헤이룽장성 하얼빈에서 열린 무역상담회에 참석해 중국 동북아 시장 현황과 잠재력을 살펴봤으며 수이훙버 헤이룽장성 부성장과 만나 경제·무역 분야 및 도시 교류 확대 방안 등을 논의했다.

또 중국 스타트업의 성지인 베이징

중관촌을 찾아 도내 스타트업의 세계 시장 진출을 위한 전략을 모색했다.

전 부지사는 “올해는 헤이룽장성과 자매결연을 맺은 지 10년, 산동성과 우호교류를 시작한 지 30년 되는 뜻깊은 해”라며 “경제, 환경, 에너지 등 다양한 분야에서 중국 지방정부와 실질적인 교류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내포=이석호 기자 ilbole@ggilbo.com

한국타이어, 취약계층 가정에 ‘희망의 빛 키트’ 전달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주)(이하 한국타이어)는 27일 대전 대덕구청에서 김주형 한국타이어 문화담당 상무, 최충규 대덕구청장, 박재용 대덕구자원봉사센터 이사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1000만 원 상당의 ‘희망의 빛 키트’ 전달식을 가졌다.

이번 ‘희망의 빛 키트’ 전달식은 대덕구 독거노인 및 장애인 등 취약계층 60여 세대를 대상으로, 가정 내 노후된 실내 조명 기기를 최신 설비로 교체하는 등 주거환경 개선 지원을 위해 마

련됐다.

이날 전달식을 통해 해당 가정에는 무선 리모컨으로 조작 가능한 고효율 LED 조명기기, 스위치, 콘센트 등으로 구성된 키트가 설치될 예정이다.

서의돈 한국타이어 안전생산기술본부장은 “지역사회 내 거동이 불편하신 취약계층 주민들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 데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형태의 지역밀착형 사회공헌활동을 계속 펼쳐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형중 기자



한국타이어가 27일 대전 대덕구청을 찾아 ‘희망의 빛 키트’ 전달식을 가진 가운데 박재용 대덕구자원봉사센터 이사장(왼쪽), 김주형 한국타이어 문화담당 상무(가운데), 최충규 대덕구청장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한국타이어 제공

대전교육청, 첫 ‘숨은 작가 찾기 대회’ 개최

대전시교육청이 학생이 창의적 사고력과 표현력을 키우고 독서와 글쓰기를 생활화할 수 있도록 올해 처음으로 ‘2025학년도 숨은 작가 찾기 대회’를 개최한다.

이번 대회는 2022 개정 교육과정이 강조하는 자율성과 창의성을 실현하고 학생이 ‘삶의 저자’로 성장하도록

돕는 데 의미가 있다. 대회는 5월 대회 안내를 시작으로 9월까지 학교별 창작 활동을 이어가고 11월 4일부터 7일까지 ‘숨은 작가 북 콘서트’ 형식의 문학 행사를 통해 학생들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는 시간을 마련할 예정이다.

대전교육청은 이번 대회를 통해 문학 감성과 재능을 지닌 학생을 발굴

하고 정서적 성장을 지원하며 체형 중심의 독서·글쓰기 교육 문화를 학교 현장에 정착시킬 계획이다.

대전교육청 조성만 유초등교육과장은 “처음으로 시작하는 이번 대회가 학생들에게 책 쓰기의 즐거움과 성취감을 경험하게 하고 학교 현장에 창의적인 독서문화가 확산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조길상 기자 pcop@ggilbo.com